



늘 새로운 아침을 출발하면서

김미란(동국고등학교, 국어교사)

난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기나름의
역할과 임무를 다할 것을 믿는다.

꼭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서 한 해의 시작은 삼월이다. 삼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일년은 언제나 빨라 돌이켜 보면 어제 같은 일들이 한참 전의 일들이 되곤 한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한지 올해로 십구년째 강산이 두 번은 변할 시간이 흘렀다. 처음 아이들 앞에 섰을 때는 아이들과 나이 차가 나지 않아 - 고등학생이었기에 - 아이들 앞에서 울기도 많이 하

였고, 짓궂은 남학생들이라 “선생님 좀 있다가 나한테 시집 오세요” 하는 얘기도 듣고, 유주현 씨의 탈고(脫稿) 안 될 전설을 할 때 본문 중에 나오는 ‘흠뻑 젖은 승복은 세련된 여체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대목에서는 “뒤 편에 물 있으니, 선생님 한 번 해보세요” 하기도 하고, 교탁 밑에 개구리를 넣어 두어 놀라기도 했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라>는 시(詩)의 한 구절처럼

나는 그들이 나를 좋아한 것보다 더 그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금도 내가 뚝뚝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처럼 내가 아이들을 만났었고, 지금 만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늘 아이들과 만나면서 나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일을 오늘까지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희뿌연 안개와 함께 시작하는 아침, 한낮의 눈부신 태양과 봄에 연한 연두빛이 되어 바람에 흔들리는 수양버들, 한여름의 매미소리, 파도치는 바다, 맑은 가을하늘, 꽃보다 더 곱게 물든 단풍, 서녘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며 지는 저녁 해, 하늘이 눈빛이 되면서 내리는 눈과 눈 온 세상이 있는 겨울, 달빛, 밤하늘의 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가 쉬운 아이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학하는 대학은 그저 보통의 대학이나, 남들이 가지 않아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에 가는 편이다. 간혹 철이 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그전의 자신을 극복해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식을 전달한다는 입장에서 나는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에 비해서 힘이 많이 들어 늘 속상해 한다. 그렇지만 난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기나름의 역할과 임무를 다할 것을 믿는다. 꼭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소위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세상은 아주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의 일을 해내면서 살아가는 곳이다. 무엇을 하든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

아 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너는 이걸 참 잘하네. 선생님은 잘못하는데...”

“너는 이걸 하면 참 잘하겠는데.” “야 너 이발하고 나니 너무 잘생겼네.”

이런 말들을 해 주면 나보다 훨씬 커서 덩치는 곱만한 녀석들도 부끄러워하며 좋아한다. 나는 지금의 학생들과는 눈높이를 같이 하여 항상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편이라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졸업하고 나서 길 가다 멀리서 만나도 달려오면서 반갑게 선생님이라 인사하고 군에 갈 때나 장가갈 때도 연락을 한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 우리가 같이 기억하는 일들을 즐거이 얘기하게 된다.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을 사랑한다. 언제나 새로운 아이들. 그리고 내가 하는 한 마디가 그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 우리 사회의 일꾼이 되는 아이들의 선생님이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언젠가 한 아이는 119소방대의 운전을 한다면서 밝게 웃었다. 그 일이 그 아이(아이라 하기엔 너무 큰)에게 너무 잘 맞다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학생들에게 나는 또 말한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너의 최선을 다해라.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한다. 끝까지 노력하고 좋은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나도 지나온 만큼의 세월이 지나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아이들을 만나면 뚝뚝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내 삶도 멋지게 잘 꾸려 나갈 것을 다짐한다.

살다보면 때론 힘들 때도 있을 것이다.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린 날, 바람 부는 날, 천둥 치고 소나기 오는 날, 눈 오는 날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루를 출발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사랑할 것이다. **EPK**